

일주문



불광장학회 장학생 선발 모집
잠실 불광사 회주 지홍 스님은 1월 11일까지 총장학금 2500만원의 '불광장학회' 2009년 1학기 장학생을 선발한다.



불교NGO활동가 송년법회
시국법회추진위 공동추진위원장 수경 스님은 12월 30일 조계사에서 대불정, 불교환경연대 등이 참가한 불교 NGO활동가 송년법회를 봉행했다.



봉원사 신임주지 일운 스님
육천범음대학 학장 일운 스님은 12월 24일 태고종 봉원사 설법전에서 거행된 40세 주지선거에서 봉원사 신임주지로 선출됐다.



강북장애인복지관 장학금 전달식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장 진화 스님은 구립 17일 봉은사 서산·사명 장학생으로 선정된 중·고등학생과 장애인 15명에게 총 585만 원을 전달했다.



동대 연극실기전문석사 학위 개설
동국대 오영교 총장은 2009학년도 1학기부터 국내 최초로 연극(공연예술)실기전문석사학위(MFA) 과정을 개설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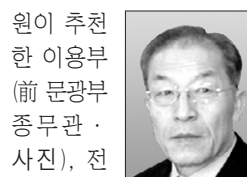


육천유래 출판기념회 및 송년의밤
충북 육천군 한용택 군수는 구립 23일 육천 다이아몬드홀에서 <육천역사 유래집>과 <육천문화> 23집 출판기념 송년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인사

BBS신임이사 선임

불교방송 이사회는 구립 18일 제 67차 재단이사회에서 이사인사가 만료된 종상 스님과 송석구, 명호근 이사의 연임을 결의했다.



원이 추천한 이용부(前 문광부 종무관·사진), 전경두 이사를 신임 이사로 선임했다.

원우회 15대 김한일 위원장

원우회는 12월 23일 정기총회를 열고 제15대 조계종 종무원조합 원우회 위원장에 김한일 행정관(총무원 기획실·사진)을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김 위원장은 2000년 조계종 포교원에 입사해, 현재 기획실 기획팀에서 종단 예산·종무 계획을 담당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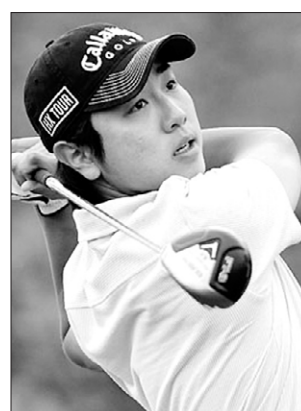
“어머니 절 한 번에 버디 하나 각오로...”

아름다운동행 홍보대사 1호 배상문 프로골퍼 1000만원 기부

무심타법(無心打法)으로 한국 골프계 샛별로 떠오른 불자골퍼 배상문 선수가 불행홍포와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해 정진하겠다고 밝혔다.
12월 22일 불교계 최초 공익법인인 아름다운동행의 홍보대사 1호로 위촉돼 1000만원을 기부한 한국프로골프협회(KPGA) 배상문 선수(22·사진)는 “프로골프 선수가 자리 잡는데 불교가 큰 도움이 됐다. 지금 상황에 만족하지 않고, 더욱 열심히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차곡 오르는 순위에서 보듯이 현재 재보따라 미래가 더욱 촉망받는 기대이다.
배 선수가 있기까지는 묵실한 불자인 어머니 시욱희 여사의 역할이 지대했다. 배 선수는 생후 5개월부터 홀어머니 시욱희 여사 슬하에 외아들로 자라며, 넉넉하지 않은 환경에 유명프로에게 레슨도 받지 못했다. 현재 한국골프 대표선수가 된 배 선수 뒤에는 직접 무거운 캐디백을 메고 다니며 뒷바라지한 시욱희 여사가 있었다.
운동선수를 뒷바라지하는 힘든 생활에도 시 여사를 지탱한 것은 바로 불심.
배 선수는 “어머니께서 어렸을 때부터 해인사 홍제암 등에 아예 살다시피 하며 기도해주셨다. 어릴 때 홍제암에 가면 불을 쓰다 들어주던 스님이 생각난다”고 일

화를 밝혔다. 이어 “지금도 은혜사 중앙암 등에서 경기가 있는 날이면 매일 기도정진하고 계신다”고 어머니를 소개했다.
이번 홍보대사 위촉도 불교TV 공익광고를 접한 시 여사가 아들을 대신해 기부사를 밝혀 추진됐다. 당시 해외경기 중이었던 배 선수는 기부사실을 대외에 알리지 말 것을 부탁했지만, 아름다운동행 측이 홍보대사 위촉과 선행사례 홍보가 또 다른 기부문화 확산을 이끌 수 있다고 제안해 흔쾌히 수락했다. 위촉식에는 배 선수와 함께 시 여사가 목수술로 몸이 불편한 가운데 참석해 불심을 느끼게 했다.
시 여사의 아들을 위한 불심에 배 선수는 어머니 절 한 번에 버디 하나라는 각오로 경기에 임했다. 배 선수는 “어머니께서 기도하시는 것을 떠올리면 마음이 편



해지고 경기도 잘 풀린다”며 “명상 등으로 컨디션 조절을 하고 있다. 주의가 많이 산만한 성격이라 큰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배 선수는 “시즌 후에는 조용한 산에 가기도 하고 스트레스트도 즐기는 마음 수행을 하고 싶다”며 더욱 활발한 신생활도 다짐했다.
노덕현 기자

“신행에 도움되도록 최선을” 본각 스님·반영규 거사 대상

제주불교신문 발행인 원종 스님

제6회 대원상 시상식

“앞으로 다양한 지면 구성을 통해 제주불교신문이 불자들의 바른 신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월 22일 제주불교신문사 임시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신임 발행인에 추대된 원종 스님(제주 관음사 주지·사진)은 이와 같이 활동계획을 밝혔다.
원종 스님은 “불자들의 사랑으로 제주불교신문이 내내 이어온 창간 20주년을 맞아 성년이 된다”며 “그동안 바라는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부처님 정법 전달에 더욱 매진할 것을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신임 발행인 추대는 前 발행인 시몽 스님이 지난해 10월 장성 백양사 주지로 임명, 사의를 밝힘에 따라 이뤄졌다. 제주 불교신문은 19년간 지면을 통해 불법을 전달한 제주지역 유일 불교홍보지로, 제주도 내 불자들이 일불제자라는 공동체 의식을 공유하게 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 받고 있다.
원종 스님은 “신문 발전을 위해 어떠한 질책도 겸허하게 수용 하겠다”며 “앞으로도 독자 여러분과 불자들의 변함없는 사랑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또 스님은 “제주불교연합회 장으로서 제주불교신문의 도약과 역량 강화를 위해 연합회 차원에서도 후원자 역할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원종 스님은 1980년과 1982년 범어사에서 덕명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고암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한 후 범어사승과 대학과 중앙승가대학을 졸업했다. 이후 장원 성주사·강화 보문사 주지와 중앙승가대학 총동 문화장을 역임했다.
김진성 기자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민병천, 이하 진흥원)은 12월 24일 마포 불교방송 대법당에서 <불교와 문화> 제100호 발간 기념 테마음악회 및 제6회 대원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대원상 대상은 본각 스님(중앙승가대)과 불교음악가 반영규 거사가 수상했다. 비구니 최초로 대원상 대상을 수상한 본각 스님은 30여 년간 불교 발전과 후학양성에 기여한 학승이다. 반영규 거사는 <빛깔 있는 책> 시리즈(대원사)를 통한 불교출판 활성화와 장차 찬불가 보급을 통해 불모지였던 한국 불교음악을 개척하는데 앞장섰다.
특별상은 좋은벗경소리(대표 성행)와 김형근(미추원대불교 발행인), 윤소희(부산대 국악학과 강사)씨가 받았다. 불교 콘텐



제6회 대원상 수상자들. 왼쪽부터 문지영, 이지선, 김형근씨, 반영규 거사, 본각 스님, 윤소희, 정일훈씨.

츠를 통한 미디어 포교를 진흥하고자 올해 처음 시상한 불교진흥 프로그램 아이디어 공모상은 이지선(프로젝트 활동가)씨, 문자영 작가, 정일훈·안태성씨(동원/엔츠)가 수상했다.
본각 스님은 “앞으로도 은혜를 받고 은혜를 갚는(知恩報恩) 삶이 가장 숭고한 삶이라는 부처님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겠다”고 말했다.
반영규 거사는 “부처님 말씀 전하는 일에 더욱 더 정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조동섭 기자

파라미터청소년협회 인도국제구호활동



파라미터청소년협회(회장 도우)는 구립 24일 인도 부다가야, 바라나시, 녹야원, 아그라, 자이푸르, 델리 일대로 인도국제구호활동을 떠났다. 봉사단 28명은 의료봉사, 문화교류 활동을 하고 1월 4일 귀국할 예정이다. 이상언기자

지구촌공생회 캄보디아 라오스서 자원봉사



지구촌공생회(이사장 월주)는 구립 21~31일 캄보디아와 라오스 일대에서 자원봉사활동을 전개했다. 동국대 108리더스 해외연수봉사단 66명이 참가해 현지 NGO 활동으로 전문성을 넓혔다. 노덕현기자

아름다운동행 ‘네모의 꿈...’ 저금통전달식



아름다운동행은 구립 24일 제3호 아름다운집으로 선정된 내국어린이집(원장 이정현)에서 ‘네모의 꿈’ 저금통 전달식을 개최했다. 소림사 부설 내국어린이집 어린이 47명은 2일간 모금한 150만원을 전달했다. 이상언기자

영등포장애인복지관 연예인 축제 한마당



영등포장애인복지관(관장 지계)은 구립 23일 영등포장애인복지관 대강당 부쿠나홀에서 개관기념 연예인 축제 한마당을 개최했다. 연예인 현철, 혜은이 등 5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료됐다. 이상언기자

원효사 동지족 나눔행사 개최



무등사원효사(주지 현재)는 구립 24일 광주공원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동지족 나눔행사를 개최했다. 행사는 신도회가 준비한 동지족을 어르신들에게 대접하고 새해 건강과 행운을 기원하는 취지에서 진행됐다. 양행선 광주주지사장

아주 특별한 영치유의 세계!!

미국최면전문대학(Hypnosis Career College)과 학술교류 협정

제38기 최면 「전생요법 · 빙의 치유법」



“한마디 말”로三生을 꿰뚫고, 영혼의 아픔을 치유한다.

수련과정 1월 8일 목요일 개강
매주 목요일 본원 출석 7회과정 (오전 10시 ~ 오후 5시 까지)

- ▶ 과정별 교재 및 수련 테일 제공
▶ 수련비 : 200만원
▶ 특전 : 전생상담 이수증 발급 및 한국최면지도사협회 가입시 정기적 보충교육 실시

한국최면과학원장 이재형 박사 직강

커버넌트대학교 상담학 박사
미국 최면전문대학 객원교수
국제 공인 임상 최면치료사(ICHT)
한국최면지도사협회장
미국 국제최면 치유학회 이사
일본 최면의학심리학회 회원

국제 공인 최면전문가 자격증 취득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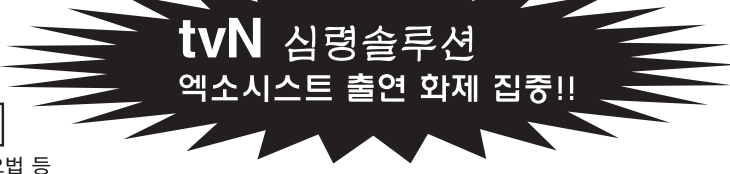
전생(前生), 사주팔자(四柱八字), 빙의(憑依)에 얽힌 삼각관계를 아십니까?

전생의 성적표인 사주팔자는 빙의와도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본 강좌는 사례중심의 시청각 교육 등 많은 임상경험을 바탕으로 철저한 실기위주로 지도하여 그 해답을 통쾌히 풀어 드립니다.

Table with 2 columns: Topic (빙의치유법, 전생요법, 명리학, 최면학) and Description.

안내자료 전생, 빙의 치유 및 명리학 공개특강 비디오 테일을 보내드립니다.(1만원)

인천교대, 충남대, 청주대 에서 최면학 강의
공무원 연수원, 군부대, 기업체 등 에서 생활최면 특강
KBS, MBC, SBS 등 각종 TV방송에 다수 출연
저서 : 자기최면학, 타인최면학, 생활최면, 최면학 총론, 최면요법 등



www.hypnos114.com
한국최면과학원
대전시 중구 대서동 248-301(청운빌딩2층) 042)255-0734~5